

제공일자	2012. 12. 13(목)	담당자	이상우 수석연구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500 011-9392-4697
			총3매

제목 : 『일본의 퇴직연금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』 발간

- ☐ 보험연구원(원장 김대식)의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조사보고서 『일본의 퇴직연금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』을 발간하였음.
- ☐ 연금제도는 서구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제도로서 국내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 - 특히, 일본은 퇴직일시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발전되고,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의 관행에서 최근 능력과 실적위주로 전환하는 등 인구사회, 경제, 고용, 급여체계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함.
 - 또한, 다양한 공·사연금제도가 공존하는 연금제도의 종합백화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큼.
- ☐ 일본은 1942년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1960대 초 경제성장기의 퇴직연금 모델인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이 도입됨.
 - 또한, 거품경제 붕괴 이후 2001년에 저성장 경제형 연금모델인 신 퇴직연금제도(확정급부기업연금과 확정기여형연금, 이하 각각 DB형, DC형)를 도입하고 기존의 퇴직연금 기능을 축소하는 등의 퇴직연금개혁을 추진함.
 - 현재, 기존과 신 제도가 공존하는 가운데 기존 연금제도의 기능 축소 또는 제도 폐지 등 일본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정책에 힘입어 신 연금제도의 가입 전환이 지속되고 있음.

일본의 퇴직연금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

- 일본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조사결과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는 일본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.
 - 일본은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연금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2001년에 **DB형과 DC제도를 각각 개별법 형태로 제정함.**
 - 일본은 기업의 공적연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**후생연금 일부분을 기업이 퇴직연금과 통합하여 위탁 운영하는 영국식 공적연금 적용제외제도를** 채용한 바 있음.
 -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분리(정액부분과 소득비례부분)와 소득비례 기능 확대 추진시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 - 일본의 DB형제도에서는 퇴직연금의 공공성 부여와 가입자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 공익법인 행태의 연기금 기구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기금형 제도를 시행중임.
 - 일본은 자산운용의 사후적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법정 수탁자(기업, 금융회사 등) 책임이 강화되고 후속조치로 자율기능을 대폭 확대함.
 - 한편, 법률 위반시 최고 징역형 또는 영업취소 등의 엄격한 제재조치를 마련함(우리나라는 근퇴법상 퇴직연금사업자의 법률 위반시 최고 벌금형으로 제한).
 - 신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시금 지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연금지급 5년후 일시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일시금 청구 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음.
 - 일본에서 2002년부터 DB·DC형의 장점을 혼합한 미국식 CFP(cash balance Plan)를 시행하고 있음.

-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책임을 분산하고, DB·DC형제도 병행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**DC형제도** 기여금 납입한도를 설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**DB형제도** 등에 병행 가입하도록 유도함.
- 고령의 재취업으로 DC형제도 가입시 ‘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입기간과 수급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퇴직연금의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.
- **DC형제도** 운용상품으로 손보사의 보험계약에 장기상해보험 등의 단체특약상품을 제공하여 노후자산과 보장자산을 동시에 제공함.

별첨 : 『일본의 퇴직연금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』 설명자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